**종교개혁과 교회음악, 미술**

(4지구, 신 영우)

음악과 미술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인식과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청각적, 시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직관적인 수단으로 교회발전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얀 후스Jan Hus(1372/1415)의 불발로 끝난 종교개혁은 100년 후 루터Martin Luther(1483/1546)란 백조에 의해 부활하는데, Reformation이란 뜻과 같이 비단 교회와 신앙의 변혁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다시 세우는 변화를 가져오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음악과 미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 교회에서는 하나님 찬양도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고 사제와 성가대원 등 특별한 직분에게만 허락되었다.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r Gratia’, ‘오직 말씀Solar Scriptura’, ‘오직 예수Solar Christ’,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ar Deo Gloria’이란 복음주의 정신으로 만인제사장이란 신앙적 평등주의를 주장한 루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3:16)

란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교회음악을 주장하여 평신도 성가대, 회중찬송, 모국어로 찬송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교회음악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다성음악이 보편화되던 시대에 단성음악으로 모든 회중이 유니즌(동일 선율과 성부로)으로 일체감 갖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코랄Choral’이란 새로운 형식의 회중성가로 찬양하도록 한다. http://linkback.hani.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bab8b412d12cd29a7a382e89eaac7a8코랄은 예배 의식 보다 말씀과 설교 내용을 중시하므로 화려함과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단성으로 가사 전달을 강조하므로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부합하는 찬양으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 개신교 찬송가의 모태가 된다. 종교개혁가들의 교회음악관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영향력이 국가별 바로크 음악 형성의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루터**는 플룻과 류트를 수준급으로 연주하며 플랑드르 악파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 음악이론가로 뚜렷한 교회 음악관을 갖고 있어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귀중한 선물로, 신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

“음악은 신이 주신 선물로 신학 다음으로 음악에 필적할 만한 학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음악이 들리면 마귀는 신의 말씀을 들을 때와 같이 도망간다.”

“주님은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신다.“

같이 예찬하며, 교회음악에서 개방과 자율을 강조하여 회중찬송을 장려하며 세부적으로 한 음표에 한 음절의 가사를 원칙으로 지나치게 장식적인 멜리스마를 금지하여 음표는 가사를 살아있도록 해야 하고, 대중에게 알려진 멜로디에 모국어 가사를 붙여 누구나 쉽게, 기쁜 마음으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젊은이를 위한 음악과 합창교육의 중요성 강조하며 1524년 38곡의 코랄을 모아 종교가곡집을 출판하여 교회와 가정 예배에서 찬양하도록 권고하며 확산한다.

**칼뱅**Jean Calvin(1509/64)은 엄격한 금욕주의와 규율로 루터보다 더 철저한 복음주의를 주장했듯, 교회음악에 있어서도 초대, 중세교회의 찬양의 기원이 시편인 점을 중시하며 “진실로 노래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며, 신에게 기도하고 신을 찬양하는 힘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적절한 찬송은 오직 시편이며, 시편을 부르면 신이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며 시편 중심의 단선율 찬양을 주장한다. 또한 교회에서 제단장식 및 그림, 스테인드글라스 등 예배외적 장식적 요소들을 부정하고 다성음악과 기악은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참된 경건을 방해한다며 금지하고 있다.

**쯔빙글리**Ulruch Zwingli(1484/1531)는 쮜리히 대성당의 설교자로 탁월한 성격강해로 명성이 높았던 개혁가로 가톨릭 미사 폐지 등 구교의 잔재 청산을 주장한 바와 같이 교회음악에 있어서도 매우 폐쇄적이며 보수적이 면을 보인다. 교회의 오르간을 교황의 악마적 작품이라며 철거해야 한다고 했고, 음악이 교회 예배를 돕는 측면은 있으나, 신학적 사상과 교회 행정을 바로잡는 면에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인리히 쉬츠-북스테후데-바흐-텔레만으로 이어지며 독일 바로크 음악가들의 교회음악 정립에 큰 영향을 주며 낭만주의 시대 멘델스존에 의해 다시 부활한다. 이들은 교회칸타타라는 형식에 루터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코랄 선율에 가사를 바꿔 부르는 ‘콘트라팍툼Contrafactum’ 형태를 적용하므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한다. 바흐는 실제 예배 시 설교의 이해를 도우며 찬양하는 실용음악으로 200곡의 교회칸타타를 작곡하여 절기에 맞춰 3~4년 주기로 사용하도록 하여 교회음악 최고의 가치를 구가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수난을 그린 수난곡에도 코랄 선율을 수난의 주제로 사용 곡 전체에 흐르게 하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수난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한다

**멘델스존 : 교향곡 5번 ‘종교개혁(Reformations-Sinfonie)’ d단조, OP.107**

멘델스존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Bartholdy(1809/47)은 모두 다섯 곡의 교향곡을 작곡하는데, 교향곡 5번 ‘종교개혁’은 두 번째 작곡한 교향곡으로 유명한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를 작곡하기 이전 초기 작품이다. 당시 루터가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 선언서를 발표한 1530년 6월 25일을 종교개혁의 기점으로 여겼기에 300주년 기념식에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다. 멘델스존은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가 프로테스탄트교로 개종하므로 종교개혁 300주년은 신앙인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기에 이를 위한 음악을 작곡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이 곡은 다른 네 곡의 교향곡에서 보여준 낭만성이 넘쳐 흐르는 감미로움과 화사함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큰 스케일에 엄숙하고 숭고한 분위기로 진행된다. 그러나 종교개혁 300주년 기념 행사는 프랑스의 7월 혁명과 가톨릭 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어 ‘종교개혁’ 교향곡의 발표도 연기되어 2년 후 멘델스존의 지휘로 초연이 이루어진다. 1악장에 루터의 ‘드레스덴 아멘’ 답창의 선율을 인용하고 4악장에 찬송가 585장의 선율인 루터의 코랄 ‘내 주는 강한 성’을 인용하여 곡의 시작과 끝에 루터의 선율을 채용하므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강하게 드러나는 곡이다. 이런 연유로 종교 색이 배제되던 낭만주의 음악의 꽃이 피던 당시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여 거의 연주되지 않았고 악보 출판도 작곡가의 사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1악장 :** 소나타 형식(느리게-빠르고 경쾌하며 열정적으로Andante-Allegro con fuoco), D장조

느리게 시작하는 서주부에 호른과 목관 악기에 의한 ‘드레스덴 아멘’의 주제로 엄숙하게 시작된다. ‘드레스덴 아멘’은 바그너의 ‘파르지팔’에서 성배의 주제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분위기가 바뀌어 빠른 소나타 형식으로 1,2주제가 나오며 마치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펴듯 긴박하고 열정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종결에서 ‘아멘’의 주제가 나온 후 총주로 마무리된다.

**2악장 :** 3부 형식(빠르고 경쾌하며 쾌활하게Allegro vivace), B플렛 장조

경쾌한 춤곡으로 종교개혁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밝고 빛나는 축제를 축하한다.

**3악장 :** 2부 형식(느리게Andante), G단조

기도하는 분위기로 시작하는 매우 짧은 악장으로 4악장과 끊김 없이 이어져 마치 폭발하는 4악장의 서주부와 같이 고요하게 진행된다.

**4악장 :** 소나타 형식(느리며 활기있게-빠르고 경쾌하며 쾌활하게-빠르고 경쾌하며 장엄하게

Anadate con moto-Allegro vivace-Allegro maestoso), D장조

플룻 독주로 시작하는 루터의 코랄 ‘내주는 강한 성’의 선율이 목관 ,현악기, 금관악기가 가세하며 점점 장엄해지며 멘델스존 특유의 낭만적 스타일로 활기차게-빠르게-장엄하게 변주된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요 성공 요인은 구텐베르크Johann Hemme Gutenberg(1397/1468)의 인쇄술과 모국어 성경 번역이 결합한 성경의 보급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회중찬양이라 할 수 있다. 구텐베르크와 종교개혁 이전 교회의 찬양, 성상, 성화, 스테인드 글라스 등은 성도들에게 성경과 설교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주는 시청각 교육의 수단이었으나,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이 인쇄된 책으로 보급되고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통해 음악과, 성화의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게 되고 말씀을 텍스트로 이해하는 세상이 도래한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모든 장식적인 요소를 거부하고 미사전례의 비합리성을 주장하며 배척하는데, 그리스도 이미지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교회 장식의 과열에 따른 재원 조달의 문제점에 기인한다. 또한 성상과 성화가 진정한 예배와 말씀 전달에 더 이상 절대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은 선행과 공덕이 아닌 오직 믿음과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 루카스 크라나흐 ‘율법과 은총’,1529,라임나무 패널에 유채,궁전미술관,고타 | 나무에 의해 화면이 반으로 나누어 지는데, 좌측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 벌거벗은 자가 사탄과 해골에 쫓겨 지옥의 불 구덩이로 향한다. 고개를 돌려 도움을 청하나 모세와 율법학자들은 돌 판을 가리키며 지켜만 보고 있다. 하늘에 심판의 그리스도가 구름에 |

쌓여 이 광경을 보는 냉엄한 심판과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반면 우측 세례 요한의 안내로 죄를 지어 벌거벗은 자가 십자가의 예수님께 두 손 모아 경배 드린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아래 어린양이 사탄과 괴물을 밟고 서 있으므로 죽음을 이겨 무덤을 덮은 돌문이 열리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축복을 표시하며 부활하신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흐르는 핏줄기는 직접 벌거벗은 자를 향하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구원과 은총이 중재자 없이 직접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의롭다 함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以信稱義)에 따라 루터가 주장한 칭의론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나무의 좌측은 잎이 다 떨어진 메마른 가지인 반면 우측은 잎이 무성하여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총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루터는 번역한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뒤러나 크라나흐 같은 화가들의 판화를 삽입하여 말씀의 참 뜻을 전달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고양하는 측면에서 이미지 사용은 오히려 적극 장려한다.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Düre(1471/1528)는 루터의 추종자로 화려한 채색을 배제하고 검정 잉크로 진솔하게 그리스도의 수난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화로 <대 수난> 12작품, <소 수난> 36작품과 <요한계시록> 15작품으로 부응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성화 이미지를 확산해 나간다. 비텐베르크 시의 궁정화가로 루터와 친분을 유지하던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1472/1553)는 루터의 친구로 검은 옷에 모자 쓴 익숙한 모습의 루터 초상화를 그린 화가로 유명한데, 루터의 개혁 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이를 그림으로 추구한 <율법과 은총> 시리즈를 통해 죄로 인해 죽음을 초래하는 율법의 시대와 복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은총의 시대를 대비하며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칼뱅의 신교주의를 따른 렘브란트는 오직 성경에 기반하여 화려함과 장식을 배제하고 프로테스탄트 이념에 맞는 소박함과 청빈함을 암갈색 톤에 빛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성경 이야기 속에 자신의 삶을 반영하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적으로 증거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의 궤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